

보도 일시	2026. 7. 2.(목) 12:00 <7. 3.(금) 조간>	배포일	2026. 7. 2.(목)
담당 부서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담당자	김소영 팀장(043-880-5421) 조해령 대리(043-880-5425)
담당 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	담당자	배현정 과장(044-200-4420) 조상훈 사무관(044-200-4422)

[소비자안전주의보]

비만 치료제 · 예방접종 등 주사제 투여로 인한 복통, 발열 주의

최근 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통과 발열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위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주사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3. 1.~'26. 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이었다. 2025년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2024년(238건) 대비 94.1%인 224건이 증가했으며, 올해 4월까지도 187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연도별 접수 현황: ('23년) 260건→('24년) 238건→('25년) 462건→('26년 4월) 187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비만 치료제' 위해정보 접수 건수 전년 대비 약 19배 증가

유형별 분석 결과, 독감 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례가 27.3%(31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사례가 18.3%(210건), '진통제' 투여로 인한 사례가 7.1%(8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2024년 6건에서 2025년에는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다.

위해증상별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6.7%(19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한, 발열'이 13.0%(149건), '구토'가 8.1%(93건) 등의 순이었다. 주사제 유형별로 '예방접종'은 '오한, 발열' 증상이, '비만 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 복통, 오한, 발열, 구토 등은 주사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사례(이상 반응)이며, 의약품 품목 허가 시 기 반영된 사항임.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주사제 투여 전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여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0세, 남) 2026.3.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전신 발열 발생
- (21세, 여) 2026.1. 비만 치료제 투여 용량 증량 후 복통 발생

□ 영유아·고령자는 예방접종, 청년·중년은 비만 치료제로 인한 위해 사례 많아

연령대별 분석 결과, 영유아(0~7세)는 독감,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 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81.6%(11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어린이(8~12세)부터 청소년(13~18세), 장년(50~64세), 고령자(65세 이상)에 이르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도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 비중이 25~38%로 가장 높았다.

이와 달리 청년(19~34세)과 중년(35~49세)은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위해가 각각 43.1%(119건), 32.3%(65건)로 가장 많았다.

< 생애주기별 주사제 위해다발유형 >

예방접종			비만 치료제		예방접종	
						
영유아(0~7세)	어린이(8~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34세)	중년(35~49세)	장년(50~64세)	고령자(65세 이상)

□ ‘예방접종’은 ‘의료서비스시설’, ‘비만 치료제’는 ‘주택’에서 위해 다발

위해 발생 장소로는 ‘의료서비스시설’이 69.5%(797건)로 가장 많았고, ‘주택’이 25.9%(297건),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이 0.8%(9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77.7%(244건)인 반면, ‘비만 치료제’는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가 74.3%(15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방접종’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비만 치료제’는 자택에서 스스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사제의 보관 방법, 투여 용량과 기간 등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사제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할 것, ▲예방접종 후 의료기관에 20~30분 정도 머물다 귀가할 것, ▲비만 치료제 투여 시에는 주사제 보관 방법과 정해진 용량·기간을 지킬 것,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제보 혹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해정보 신고]

- (홈페이지) www.ciss.go.kr에서 '위해정보 신고하기' 클릭
- (핫라인) 국번없이 080-900-3500



위해정보 신고

붙임 1.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 분석

2. 주사제 유형별 안전수칙 홍보 포스터

	소비생활 중 불만·피해가 발생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 부담)에 상담 신청하세요.	
--	---	--

1 위해정보 분석 결과

- (전체) 최근 3년간(’23. 1.~’26. 4.)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임.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4월)	계
건수	260	238	462	187	1,147

- (유형별) 주사제 유형별 접수 건수는 ‘예방접종’이 27.3%(31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만 치료제’ 18.3%(210건), ‘진통제’ 7.1%(81건) 등의 순이었음.

< 주사제 유형별 위해정보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예방접종	314	27.3
비만 치료제	210	18.3
진통제	81	7.1
마취제	48	4.2
항생제	40	3.5
기타*	454	39.6
계	1,147	100.0

* 필러, 영양제, 보톡스, 호르몬제 등

- (생애주기별) 생애주기별 접수 건수는 청년 276건, 고령자 250건, 중년 201건, 장년 196건, 영유아 136건, 청소년 47건, 어린이 32건 등의 순임.
- (주요 위해 유형) 청년과 중년은 비만 치료제, 영유아·어린이·청소년·장년·고령자는 예방접종(독감 등)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많았음.

<생애주기별 주사제 위해정보 접수 현황(2023.1.~2026.4.)>

(단위: 건, %)

구분	연령대별 전체 건수	1위 위해 유형	건수	비율
영유아(0~7세)	136	예방접종 (독감, 폐렴구균 등)	111	81.6
어린이(8~12세)	32	예방접종 (독감, 일본 뇌염 등)	12	37.5
청소년(13~18세)	47	예방접종 (독감 등)	18	38.3
청년(19~34세)	276	비만 치료제	119	43.1
중년(35~49세)	201	비만 치료제	65	32.3
장년(50~64세)	196	예방접종 (독감 등)	49	25.0
고령자(65세 이상)	250	예방접종 (독감 등)	64	25.6
미상	9	-	-	-

- (장소별) 위해 발생 장소로는 ‘의료서비스시설’이 69.5%(7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택’이 25.9%(297건),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이 0.8%(9건) 등의 순이었음.

<주사제 관련 위해 발생 장소 현황(2023.1.~2026.4.)>

(단위: 건, %)

구분(대분류)	건수	비율
의료서비스시설	797	69.5
주택	297	25.9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	9	0.8
교육시설	3	0.2
공공시설	2	0.2
도로 및 인도	2	0.2
숙박 및 음식점	1	0.1
기타	36	3.1
계	1,147	100.0

○ 주요 위해 유형별 위해 발생 장소

- (예방접종) 전체 주사제 위해정보 1,147건 중 예방접종 관련 사례는 27.3%(314건)였고, 이 중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사례가 77.7%(244건)로 대부분이었음.
- (비만 치료제) 전체 주사제 위해정보 1,147건 중 비만 치료제 관련 사례는 18.3%(210건)였고, 이 중 '주택'에서 발생한 사례가 74.3%(156건)로 대부분임.

<주요 위해 유형별 위해 발생 장소 현황(2023.1.~2026.4.)>

(단위: 건, %)

구분(대분류)	예방접종		비만 치료제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의료서비스시설	244	77.7	32	15.2
주택	57	18.2	156	74.3
교육시설	3	1.0	-	-
공공시설	2	0.6	-	-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	2	0.6	-	-
도로 및 인도	1	0.3	-	-
기타	5	1.6	22	10.5
계	314	100.0	210	100.0

- (증상별) 주요 위해증상으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6.7%(19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오한, 발열'이 13.0%(149건), '구토' 8.1%(9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사제 관련 상위 10개 위해증상 현황(2023.1.~2026.4.)>

(단위: 건, %)

구분(소분류)	건수	비율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복통 등)	192	16.7
오한, 발열	149	13.0
구토	93	8.1
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호흡곤란 등)	93	8.1
두드러기	92	8.0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84	7.3
신경계통 손상 및 통증 (감각저하, 경련 등)	82	7.1
어지러움, 이명, 메스꺼움	77	6.7
부종 또는 피부감각장애	70	6.1
심혈관계통 손상 및 통증 (가슴 두근거림, 가슴 통증 등)	56	4.9

○ 주요 위해 유형별 위해증상

- (예방접종)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해증상은 '오한, 발열'이 36.9%(116건)로 가장 많았음.
-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로 인한 위해증상은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59.0%(124건)로 절반 이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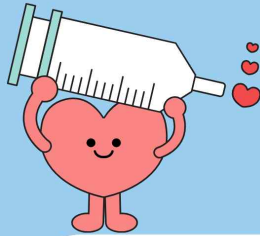
<주요 위해 유형별 위해증상 현황(2023.1.~2026.4.)>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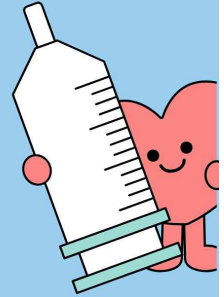
구분(소분류)	예방접종		비만 치료제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복통 등)	18	5.7	124	59.0
오한, 발열	116	36.9	1	0.5
구토	10	3.2	54	25.7
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호흡곤란 등)	27	8.6	3	1.4
두드러기	30	9.6	-	-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27	8.6	1	0.5
신경계통 손상 및 통증 (감각저하, 경련 등)	23	7.3	4	1.9
어지러움, 이명, 메스꺼움	13	4.1	8	3.8
부종 또는 피부감각장애	10	3.2	-	-
심혈관계통 손상 및 통증 (가슴 두근거림, 가슴 통증 등)	15	4.8	5	2.4

2 주요 사례

- (만 0세, 남) 2026.3.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전신 발열 발생
- (만 21세, 여) 2026.1. 비만 치료제 투여 용량 증량 후 복통 발생
- (만 83세, 여) 2025.11. 독감 예방접종 후 손발 부종과 호흡곤란 발생



주사제 투여 시 소비자 주의사항



예방접종



접종 후 바로 귀가하지 말고 의료기관에 20~30분 정도 머물면서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안전해요.



접종 후 목욕, 과격한 운동, 음주는 피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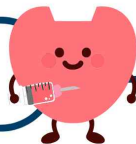
통증, 가려움, 붓기가 있다면 찬 물수건을 대고, 출혈이 있다면 문지르지 말고 꼭 눌러주는 것이 좋아요.



영유아는 귀가 후에도 보호자가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아요.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감염학회

비만 치료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처방에 따라 투여하고, 특히 임신·수유 중이거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비만 치료제 투여 시에는 정해진 용량과 기간을 준수하세요.



비만 치료제는 냉장 보관하시고,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하세요!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으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관리원, 서울대학교병원